# 역사...현실의 표본이 될 것인가



김도한 한국해양대신문사 사진부 부장

수선한 시국이다. 핍박받는 자들의 보장받아 야 할 권리를 위해 수단 아닌 수단으로 열사 의 행렬이 연잇고 각계각층의 파병철회의 목 소리가 높아져 광화문으로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신문 기자로서 2년 가까이, 다시 짚어보게 된 정 세와 그에 따라 달리 보아진 사회현상들에 회의 반 희 망 반 혼돈스러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기억 속에서 날아 오르다 Ⅱ'전시가 열리는 민주 공원은 시민들의 광장으로 자리 잡은 부산 역을 지나 부산 전역이 내다보이는 산 정상 즈음에 위치한다. 광 활한 부산의 배경을 뒤로 문턱을 넘어 3층에 위치하 는 전시실로 향했다. 나사구조로 이루어진 건물인지 라 원의 바깥지름을 한 바퀴 돌게 되었는데 벽면에는 위인들의 완성되지 않은 초상화가 붙어 있었다. 분할 된 모습의 대형 초상화였는데 여러 조각을 스티커로 하나씩 붙여나가 형상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관람자가 만들어가는 작품이었다. 본 전시장에 입장하기 앞서 혁명가로서 빛을 보지 못한 채 시대의 비극에 잠들어 간 위인들의 넋이 여전히 미완의 완성으로 남겨져 있 다는 생각이 쓴 인상을 갖게 했다.

우선 전시장 앞에 마련된 관람자들의 체험 프로그램 여럿이 눈에 띄었다. 점토로 빚어져 가시화된 아이들 의 세상도 그 곳에 담겨져 있었다. 수난의 역사를 걸어 온 우리나라를 상처 난 나무로 표현한 아이와 화염에 타오르는 노동자의 모습. 탱크와 총칼에 짓밟히는 시

민의 모습을 빚어낸 아이도 있었다. 시대의 아픔을 여 실히 꼬집어 낸 아이들의 손길이 테라코타로 구워져 그 또래와 관람자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시 대의 아픔을 느낀다. 그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 전시 장 바로 앞에는 판화를 찍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다. 여러 문양의 작품 중에서 갈대 하나 를 파 놓은 것을 선택했다. 무언가 의미를 남겨 놓은 채 말이다

### 전시장 앞의 체험 프로그램

전시장에는 조각과 조형물, 여러 도구를 이용한 그 림 등 역사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역사적 사료에



위인들 형상을 만들어 내는 '스티커 부치기' 프로그램

걸맞게 구비되어 있었다. 더욱이 자료들을 역사와 더 불어 배치해 대비를 통한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 고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며 인물이 생전에 남겨놓은 글귀 등을 그대로 전시해 놓아 호소 력을 높이고 있었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금방 올 께요. -경대'

강경대 열사의 쪽지 내용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담은 그림 위쪽에 쓰여져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군홧발에 짓밟히는 모습과 커다란 깃발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 등을 점토로 빚은 작품 뒤로 피 흘리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던 것이 인상에 남는데, 이는 각 양식이 드러낼 수 없는 한계점을 상호 보완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그 생동감과 현장감을 더했다.

전시실을 걸으며 역사를 느낀다. 한 걸음 한 걸음 발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가난과 독재와 탄압의 항거로 물들어진 피의 얼룩이 흩날리고 민중이 부르짖는 절규가 들려오는 듯 하다. 벽면엔 항거하는 시민·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공권력과 대립하며 피 흘리는 장면이 영상물로 상영된다. 폭력적 공권력의 상징물인 몽둥이와 방패가 바닥에 놓여져 있었고 영상에서는 그러한 공권력에 대항하며 싸웠던 열사 이름들이 겹겹이 명시되어 있다. 그 곳에 그림자 비친 나의 모습은 과거와 현실의 만남을 가져다주는 듯 하다. 하지만 못내 부끄러워 비켜선다. 역사에 기록된 민주주의 염원을 갈구하는 그들의 목마름에, 그들의 진정한 애국에 자신에 대한 성찰의 기회 또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전시실

전시관 내의 전체적 전시 흐름은 시간 순으로 잘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마치 산길을 걷는 것처럼 험난한고개를 넘기도 했고 잠시의 평지에 안온함을 맛보기도했다. 각각 중대한 사건과 굴곡의 시기들은 '암흑과고난의 강을 넘어'등의 문구들로 상황을 암시했고 또한 적절한 사진과 색채로 구성해 관람자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시각적 고려에서도 좋은 배치를 했는데 나무로 깎아내어 표면이 거칠한 시민군의 모습 뒤로 1980년 5·18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단순 사건 나열식이 아닌 보다 세심한 배려와 방법으로 접근하려 했다.

몇 번을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그 후에는 마음 가는대로, 마지막에는 거꾸로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연도만이 바뀌어 있을 뿐 달라지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탄압과 독재자의 횡포, 부익부 빈익빈의 순환상이 시대를 막론하고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사건'을 통해 라는 것이 달라질 뿐 서민들의 울분과설움은 그치지 않았다. 입구와 출구의 개념이 필요치않는 전시실, 처음과 현재까지의 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역사는 현재의 표본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 세심한 배려와 방법으로 접근

문을 닫는 전시실의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돌렸다. 어둠으로 가려져 식별하지 못하는 역사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억 속에서 날아 오르다 Ⅱ' 한국민주화운동역사 부산전시회의 기획력을 참으로 높게 사고 싶다. 제대로 된 역사를 전달하며 민주주의 만세를 부르짖으며 항거한 민중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에 감사함과 다행스러움 역시금치 못할 일이다. 오히려 전시 주제를 '기억 속에서…'가 아닌 '기록 속에서 날아 오르다'로 바꾸었어도 무관할 만큼 상세하고 꼼꼼한 전시 준비에 경이로움을 느낀다.

숨 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 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등 뒤로 두었던 부산의 모습이 폐관 시간을 지나고 나니 야경으로 아름다움을 발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던 공간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비록 갈대 하나가 새겨진 것을 판화로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 외롭던 항거의 역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슴 한 켠에 자리 잡아 있다. 지난 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며 남겼던 유서 내용이 30년 남짓 지난 후의 노동해방열사의 유서 내용과 달라지지 않는 현 시대 상황, 그 순환의 비극이 더 이 상 초래되지 않기를 숨결로 담아 보내는 마음이다.